



3일 광주시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지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매장도 한산하기만 하다.

/내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여수시 남산동 여수수산물 특화시장 앞에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습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려 있다.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가 내걸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번지는 방사능 공포... 수산물 시장 직격탄

#. 2일 오전 광주시 동구 학동 남광주시장은 한산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명절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수산물 코너를 찾는 발길도 뜸했다. 곳곳에 내걸린 '국산 고등어', '진짜 목포 갈치'라고 쓴 안내판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대변하는 듯했다.

#. 비슷한 시각 여수시 남산동 여수수산물 특화시장. '우리는 일본산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습니다'는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다. 수산물상인회가 수산물시장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내걸었다. 김모(43)씨는 "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느는 데, 여수 앞 바다에서 잡은 거라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는다"면서 "가짜이나 어획량이 부족해 수산물 가격도 2배가량 올랐는데, 방사능 공포까지 겹치면서 손님이 크게 줄었다"고 고소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최근에는 방사능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퍼지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당국의 방사능 검사 및 수입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안감이 사라지지 않아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무서워서 못 먹겠다'는 게 인사' = 남광주시장 A수산 황모(여·42)씨는 "손님마다 '무서워서 못 먹겠다'고 말하는 게 인사가 됐다"고 했다. 황씨는 "고등어나 생대구 등 일본산이 많은 어종 뿐 아니라 국내산 수산물 판매량까지 똑 떨어졌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방

사능 오염수가 지난 2년간 하루 300t 가량 바다로 유출되고 있다고 밝힌 뒤 수입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다. 다른 B 수산 박모(55)씨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때문인지 장사가 예전보다 더 안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나마 제철인 꽃게와 전어가 인기가 높아져 참을 만 하지만 자칫 불안감이 확산돼 추석 대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일본산 수산물 안전인가=2일 광주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광주 식약청)에 따르면 올 들어 여수·목포·군산·제주 수입식품

■일본산 식품등 잠정 수입중단 조치 현황 (2013. 8. 9 기준)

순번	지역명	수입 잠정중단 대표 품목
1	후쿠시마	조피볼락·감성돔·홍어·송어·명태·농어·민어·강도다리·넙치·봉장어·양태·대구·도다리·동근성게·돌대구(Physiculus maximowiczii)·뱀장어·황금치·솜뱅이
2	이바라키	농어·민어·넙치·뱀장어·홍어·물가자미·대구
3	군마	산천어
4	미야기	농어·산천어·대구·줄복·넙치·감성돔·은어
5	이와테	대구·농어·감성돔·넙치
6	토치기	곤들매기·산천어
7	치바	봉어
8	아오모리	대구

검사소를 거쳐 광주·전남지역으로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은 7월 말 현재 7.2t. 지난해 수입 물량 6.98t을 넘어섰다. 광주·전남지역에 들어오는 수입 수산물은 전복 외에는 없다. 광주 식약청 관계자는 "광주·전남으로 수입되는 수산물은 전복 뿐"이라며 "광주·전남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물론, 타 지역에서 수입돼 광주·전남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현재까지 일본산 수입식품 6만6857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100Bq/kg)를 밑도는 것으로 파악했다. 수산물 131건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건지만 모두 2~5Bq/kg로 미비한 수준이라는 것. 국민 식탁에 자주 오르는 명태·고등어·가자미 등 태평양산 수산물 6종(총 726건)을 비롯, 국내산 수산물 14종(755건), 명태 등 원양 수산물(283건) 검사에서도 방사능 수치를 초과한 수산물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서식하는 오징어·고등어·참조기·멸치 등은 일본 어종과 생환경도 분리되고, 태평양 앞바다를 거쳐 국내로 들어올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불안감 해소 적극 나서야=그럼에도 국민 불안감은 여전하다. 특히 식약처가 일본산 농산물·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의 세습과 요오드 같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더라도 수입 차단 조치를 내리면서 축·수산물에 대해서는 기준치 이하 세습 검출은 문제 삼지 않고 수입을 허용하는 등 애매한 기준을 적용한 점도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방사능 물질이 물안에 축적되는 만큼 미량이라도 발견됐다면 수입 금지라는 해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정서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흘러 나오고 있다. 불안감이 확산할 경우 재래시장 수산물 상인들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당국의 홍보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2100년 해수면 최대 91cm 상승 뉴욕·런던·상하이 잠길수 있다?

뉴욕타임스 IPCC 보고서 보도

현재 수준으로 온실가스가 방출된다면 2100년까지 해수면이 최대 91.4cm 상승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보스턴글로브는 최근 뉴욕타임스가 단독 입수한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 보고서 초안을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지구 해수면 상승을 초래하는 몇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가장 낙관적인 견해는 세계 각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통제하는데 성공한다면 2100년까지 해수면 상승폭이 10인치(약 25.4cm) 상승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20세기 해수면 상승폭인 8인치(약 20.3cm)보다 조금 많은 수준으로, 해안가에 심각한 침식 현상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대체로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재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면 해수면은 21인치(약 53.4cm) 이상 상승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3피트(91.4cm)

이상 오를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 경우에는 해안가에 사는 인구 수억 명이 위기를 맞고, 특히 3피트 이상 상승한다면 미국의 뉴욕,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영국 런던, 중국 상하이(上海), 이탈리아 베네치아, 호주 시드니 등 주요 도시가 잠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화석연료 사용과 같은 인간의 활동이 1950년대 이후 관측되고 있는 대기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2007년 발간된 보고서보다 전반적으로 훨씬 악화된 것이다. 당시 유엔이 발간한 보고서에선 인간의 활동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90~100% 정도라고 밝혔지만, 이번 보고서는 95~100%로 상향했다. 보고서는 최근에 지구 온난화 속도가 느리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단기적인 현상이라고 반박하며,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요인들이 더욱 확고하게 역할을 하고 있고, 온실가스 방출의 영향도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과일선물세트 띠지 없앤다

환경부-유통업계 친환경포장 실천 협약

정부가 올 추석 명절부터 과대 포장 줄이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명절 선물세트에 들어가는 띠지를 전면 제거하고 식품 선물세트에도 리본과 같은 부속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 환경부는 띠지 개당 가격이 100원~150원으로 계산할 때 과일세트 한 개 당 평균 1500원 가량의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17일까지 추석명절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조사 등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이번 협약으로 유통사들은 추석 명절 줄이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명절 선물세트에 들어가는 띠지를 전면 제거하고 식품 선물세트에도 리본과 같은 부속 포장재를 사용하지 않게 된다. 환경부는 띠지 개당 가격이 100원~150원으로 계산할 때 과일세트 한 개 당 평균 1500원 가량의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17일까지 추석명절 과대포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조사 등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부실채권(NPL) 매각

용산동 웨딩홀
 대지권 1924㎡ 건 물 3290㎡
 감정가격 47억3천만원
 채권매각 20억원

화순도곡 무인텔
 대 지 3198㎡ 건 물 1107㎡
 감정가격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3억

화정동 예식장
 대 지 1094㎡ 건 물 4489㎡
 감정가격 41억5천만원
 채권매각 20억원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매진행중이거나 정지중인 물건을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제테크 방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17-1 (1층 굿모닝타운 분양 사무실)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87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면적 약150평~420평(분할·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90%진행중

70% 분양완료!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러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찾아오시는길 선운지구 영광 → 어등산골프장 호남대학교 → 어등산 빌리지

도시속 친환경 명품주택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 010-2475-0933

부동산 성공 투자
하늘땅 공인중개사 가 함께합니다

상가/건물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27억(보증금 2억8천, 월 1,600만)
- 첨단 월계동 건물 매 36억
- 월산동 6층 건물 매 14억5천 (보증금 2억8천, 월810만)
- 두암동 5층 건물 매 8억5천
- 첨단 구본포 105㎡ 매 8억6천 (보증금 8천, 월430만)

대지/전답

- 나주 혁신도시 인근토지 7,800㎡(구 2,400평) 3.3㎡당 80만원
- 광산구 신창동 생선복지 1,980㎡ 매 6억5천 (창고·공장 적합)
- 완도군 약산면 11,000㎡ 매 8억4천 (펜션,귀농지,전원주택용지 적합)
- 장흥군 장평면 13,165㎡ 매 3억5천 (대 660㎡, 신축주택포함)
- 장흥군 용산면 101,851㎡ 매 6억 (연수원,요양병원,관광농원 적합)
- 여수 돌산읍 전 1,874㎡ 매 2억 (바다전망,전원주택,펜션 적합)

기타

- 나주시 문평면 국도 1호선변 주유소 매 7억 (중 4.5억 포함)
- 전남 소재 골프장 1,000억

광주,전남권 매도·매수 상담,접수 환영

부동산 투자의 새로운 패러다임
하늘땅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5536-0382 Fax 062) 974-0449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영천 부동산

상가건물
대지·임야
전원주택·묘지

급히 파실분
 부동산을 급히 팔거나, 임대를 원하시면 저희 영천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빠른 시일내에 매매·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
 매수자·매도자·매도 물건에 대하여 비밀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전남여고 건너편 ◀

영천공인중개사
 010-4610-3763
 062)222-5105